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새누리당 민경욱, 이만희, 최교일 등 초선의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潘으로…신당으로…새누리 집단 탈당 임박

3선 박순자 바른정당 입당…나경원, 潘-신당 사이 고민
‘탈당 유력’ 10여명 넘어…결행시 여권 세갈래로 재편

새누리당에 또다시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두고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으로 향하는 비박(비박근혜)계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이후 시기를 엿보던 총청권 의원 두 갈래의 탈당 러시가 임박하면서 여권(嚴) 정계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 안산 단원읍이 지역구인 3선의 박순자 의원이 23일 탈당 선언과 동시에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여기에 심재철 국회 부의장, 홍철호·정유섭·윤한홍 의원도 사실상 탈당을 결정하고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여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지역구인 의원들이다.
애초 신당 탈당파에 이름을 올렸으나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탈당을 고심 중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마음이 있는 지역 여론 때문에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반 전 총장 쪽으로는 충북 의원 을 중심으로 탈당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경대수(중평·진천·음성)·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이중배(충주) 등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퇴임 전 뉴욕을 방문해 대선 출마를 논의했던

3인방의 탈당이 유력시된다.
또 충남에서는 위성탄 특파원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적극적으로, 충청포럼 회장을 지낸 고(故) 석완중 전 의원의 동생 성일중(서산·태안) 의원도 탈당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청권은 아니지만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도 반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설 연휴 전 탈당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돌고 있다.
애초 탈당파로 분류됐던 나경원 의원 역시 반 전 총장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덕흠(재선), 김성원·권석창·민경욱·박찬우·성일중·이만희·이양수·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이 이날 반 전 총장과 면담해 시선을 끌었다.

이들이 탈당을 결행한다면 여권은 3세력으로 나뉘며 여권발 정계개편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에 중징계를 내리며 내부 정리에 나선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 체제’는 대기업과 정당·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쇄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보수정당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총청권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세를 형성하고 있는 반 전 총장 측은 연대나 통합의 대상을 찾는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탈당세력 규합으로 힘을 받은 바른정당도 일단 당내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 가면서 반 전 총장 등과의 연대나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기문 “정당보다 제3지대…진보보다 보수”

새누리 초·재선 만남…“대선 완주할 것”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3일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른바 ‘제3지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사무실 인근 호텔에서 만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몇몇이 제3지대론을 언급하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제3지대에서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되, 진보보다는 보수 진영에 터전을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서 참석 의원들이 ‘보수 대통합의 구심점이 돼 달라’고 하자 반 전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중도 쪽으로 의견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제안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 전 총장은 또 “중도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

자들에게’ 새누리당에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답변했고, “바른정당 간다는 이야기기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민경욱 의원은 “의원들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입당 관련한 말이 있지 않었나. 복수의 언론에 보도도 있었다’고 하자 그런 것이 아니다. 통합적으로 가야지 선별적으로 어느 정당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내세운 ‘정치교체’의 조건으로 개헌을 강조하며 “30년 된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이후 ‘민생 투어’ 과정에서 드러난 몇몇 실수나 해프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 입장을 보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사람과 한 달 동안 준비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지 않으나”고 억울함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반 전 총장을 만난 의원은 박덕흠, 권석창,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이철규, 민경욱, 박찬우, 김성원 등 9명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노동자 출신 첫 대통령 되겠다”

대선 출마 공식선언…15세때 일하던 성남 공장서 출사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선언 장소로 택한 곳은 이 시장이 15세 ‘꼬마 노동자’ 신분으로 1979년부터 2년간 일했던 곳이다.
이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부터 깔끔한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걸친 채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다”고 회상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분당과 판교를 끼고 있는 성남시의 시장을 맡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삶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시장은 “춣불 민심”의 지지를 토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을 턱밑까지 쫓아가는 등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나 이후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여서 이날 대선 출마로 ‘문재인 대세론’을 넘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역사상 가장 청렴 강력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불의·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 시장은 출마선언식에 가족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를 비롯해 요양보호사와 청소회사 직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형제들을 소개하는 등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셋째 형의 형수를 상대로 한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 해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한 때 가장 사랑했고 가졌던 셋째 형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며 “성남시장이 된 후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님을 막다가 의절과 수모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 금기·불의·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 시장은 출마선언식에 가족을 대동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를 비롯해 요양보호사와 청소회사 직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형제들을 소개하는 등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자신의 가족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셋째 형의 형수를 상대로 한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 해명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한 때 가장 사랑했고 가졌던 셋째 형님,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며 “성남시장이 된 후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님을 막다가 의절과 수모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교안 “지금은 오직 국정 전념”

신년 기자회견, 대선 출마 여부 애매한 화법·행보 여지 남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는 있다. 여러 루트로, 여러 채널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지지를 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답을 피해갔다.
또다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황 권한대행의 임기가 2~3개월에 불과할 수 있고, 황 권한대행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방점이 있는데 굳이 신년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국회의장 오늘 광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광주를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참배한다.
이어 정 의장은 5·18 민주화기록관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헌법 개정국민추진회의의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행사 후 광주 백범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형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용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방) ▶매가 22억

④ 수가동 제일오피스텔 6층
(전면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매가 1억4천만 (용5천)

⑤ 상무지구 오피스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용 2천4백만)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클럽,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훌륭,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